



빛을 주는 실로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144번째 이야기



페이지

정호승

어느 산 밑

허물어진 페이지 더미에 비 내린다

페이지에 적힌 수많은 글씨들

폭우에 젖어 사라진다

그러나 오직 단 하나

사랑이라는 글씨만은 모두

비에 젖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격월로 발행되었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보 '빛을 주는 실로암'은
2019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발행됩니다.

「빛을 주는 실로암」 2019년 가을호 (통권144호)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최수린, 이지영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880.0500 FAX 02.887.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기획홍보팀 02.880.0865

제작 우리미술 02.2275.6960

포커스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선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 04

포커스2

실로암 헬스모아 출시 ————— 06

포커스3

2019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 ————— 08

포커스4

2019 명절행사 '함께하는 한가위' ————— 10

해피스토리

2019년 7월~9월 사업 현장 ————— 12

국제지원사업

탄자니아 시각장애학생 대상 '학습지원사업' 실시 ————— 16

실로암 칼럼

점자표기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요? ————— 18

가을특집 코너

한국시각장애실록(개화기부터 2009년까지) 보정판 출간 ————— 20

人 Side 인터뷰

효명장학생 선배 권창규 님 ————— 22

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의 보행과 안전 ————— 24

후원보고

2019년 7월~9월 후원자 명단, 후원금 내역 ————— 2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선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50년 전 비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은 재수 없는 존재, 불길한 존재로 여겨지며 괘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을 긍휼이 여기는 사랑의 힘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큰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하늘의 소망과 땅의 희망을 품었으며, 이제는 희망을 만드는 자랑스러운 세계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문의전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02-880-0505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선교 사업은 1969년 의료법인 실로암안과병원장이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인 김선태 목사의 점자성경보급사업을 시작으로 197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맹인선교부, 1986년 의료법인 실로암안과병원, 1997년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를 통해 50여 년간 점자성경책과 점자찬송가를 보급하였으며, 약 150만 명에게 무료안과 진료로 실명을 예방하고 3만5천 여명에게 개안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1,300여명의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에게 1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시각장애인 지도자를 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재활과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외에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에서 개안수술사업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사업, 점자교과서보급사업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장애인들에게 개안과 자립의 길을 도모하였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지난 50주년간의 의료·복지선교 사업을 기념하며 지난 9월 26일(목)에 정동제일교회(담임 목사 송기성)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여 그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룬 이들과 함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기념 예배에서는 이순창 목사(연신교회)의 예배인도와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원로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김건철 장로(실로암의료선교복지연합회 수석총재), 김병규 회장(실로암의료선교복지연합회 수석총재/AMO그룹회장)이 축하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날 김선태목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선교 사업 50주년을 기념하며 동터오는 새벽여명의 빛이 100년, 500년 지속되길 바란다. 또한 앞 못 보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

서 늘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선교사업을 통해 자랑스러운 시각장애인 지도자들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박은혜(오르간연주)▲엔젤스보이스(여성중창)▲효명보이스(남성중창)▲엔젤스사운드트리오(피아노 3중주)▲AMO글로리아중창단(혼성중창)▲김예지(피아노독주)▲한국여전도회찬양단(여성합창)▲호산나합창단(혼성합창)▲관현맹인전통예술단(국악연주) 등이 무대에 올라 깊어져가는 가을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였습니다.

한편 본 행사는 (주)AMO그룹과 실로암안과병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로 하면 됩니다.

1969 2019

시각·비시각장애인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의약품 정보서비스 '실로암 헬스모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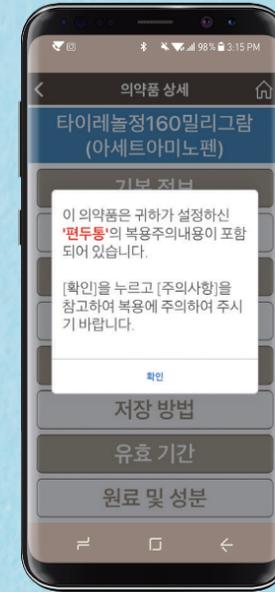
문의전화 정보미디어팀 02-880-0570~5

지난 10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정보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실로암 헬스모아'를 출시하였습니다.

'실로암 헬스모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되는 국내 6만여종의 의약품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에서 의약품의 바코드와 QR코드를 이용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의약품의 세부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병의원 처방전의 QR코드를 통해 처방전 기본정보 및 ▲의약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준수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비장애인도 누구나 손쉽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실로암 헬스모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에 앞서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세한 사용 방법을 시연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실로암 헬스모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의약품 용기에 인쇄된 글씨를 읽기 어렵고, 처방전에 어떠한 의약품이 사용되는지 인식하는데 제약이 있어 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영역에서 정당한 정보접근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실로암의 신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실로암 헬스모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 제약을 해소하고 의약품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접근권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2019 나눔과 꿈' 프로젝트입니다.

'실로암 헬스모아' 설치 방법은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실로암 헬스모아'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2019년 하반기 시각장애대학생 효명장학금 수여식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한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요. 시각장애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인내의 레이스를 멋지게 펼치고 있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8월 21일(수), 복지관 강당에서 시각장애대학생 26
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수여식에
서는 차세대 리더 양성과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성이 반듯
한 시각장애대학생 26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7천3백5십여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김선태 목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 김정자 사모, 김병규 회장(주)
AMO그룹), 동래중앙교회 김항재 장로(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 송홍섭 장
로(도림교회 장학위원장), 이남준 장로(도림교회 장학부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
석하였습니다.



문의전화 기획홍보팀 02-880-0860~6

김선태 목사는“인생의 성공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며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인내라는 결단을 내린 후 꾸준히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병규 회장은“꿈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쉽게 좌절하
게 된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장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효명장학생인 허은빈 학생(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년)은 “효명장학금은 장애로 인한 장벽 없이 다방면에
서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으며, 효명장학생 모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랑스러운 효명장학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김선태 목사님과 실
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효명장학금을 통해 2010년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총 348명의 대학생에게 약 11억2천여만원 상당
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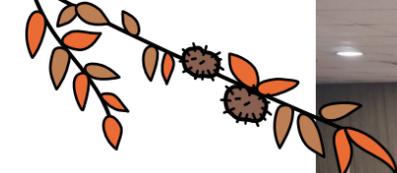
한편, 2019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이사장 김선태 목사, 김정자 사모, 실로암의료선교복지연합
회(총재 김건철 장로), (주)AMO그룹(김병규 회장), 한샘DBEW연구재단(이사장 조창걸), 도림교회(정명철목사), 한국수출입은
행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 명절행사 함께하는 한가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깊어져만 가는 가을
창문 틈으로 깊숙이 찾아든
황금빛 가을별처럼
추석명절을 맞아 이웃들의 마음에
사랑의 온기와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실로암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독거 및 고령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일(화) 추석 명절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자 32명과 자원봉사자(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나눔이웃반지-은반지) 등을 포함한 총 98명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한가위' 추석 명절행사의 풍성함을 더하였습니다.

이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추석명절은 지역사회 독거 시각장애인들에겐 더욱 외로운 시간일 수 있다. 비록 만나절동안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명절의 따뜻함과 풍성함을 느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으로는 푸짐한 점심 식사대접과 함께 2018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축하공연과 신나는 노래자랑, 선물 증정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요즘 세상에 명절이라고 떡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곳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우리 동네에 실로암 복지관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음식 뿐 만 아니라 명절의 정도 함께 나누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매일 새롭게 변하고 있으며, 가족 간 이웃 간의 정은 요즘 세상에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실로암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소외받는 이들의 가족이 되고, 지역사회 주민의 이웃이 되어 함께 정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문의전화 지역사회지원센터 02-880-0890~2





▶ **효명아카데미리더스클럽 (시각장애청소년 진학상담 멘토링)**

효명아카데미리더스클럽에서는 시각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학상담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대학생 선배들을 만나 학업에 관련한 팁과 대학생이야기, 슬럼프 극복 방법 등 궁금한 것들을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장애체험교실&직장내 인식개선교육**

국가편찬위원회, 덕성여자대학교, 서울시복지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등 총 104곳에서 4,090명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서울공업고, 방배초, 상신중 등 총 14곳에서 4,261명을 대상으로 장애체험 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 **편의시설 모니터링(자조모임) 현장점검 실시**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 5명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자조모임)이 관악구 내 맛집 편의시설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주문, 식사부터 직원 서비스, 안내견 출입 여부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공연소식**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 제8회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정기연주회 '너에게 꽃이다',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공연, 국립한글박물관 공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행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공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연 등 31곳에서 7,210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야외나들이 (표고버섯채취체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표고버섯채취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축령산 깊은 자락에 위치한 농원에서 노인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버섯농장에서 직접 표고버섯을 수확하는 등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 **패들보드**

문화체육지원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10명, 자원봉사자 8명이 함께 홍천강에서 패들보드를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2인1조가 되어 보드위에 일어서기 위해 서로 도와주고, 물에 빠지기도 하며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 **제3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지역사회지원센터에서는 총 283명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활동지원사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점자 초급 여름특강**

평생교육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한글점자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점자 초급 여름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초급 점자를 마스터하기 위해 초급점자교재와 촉각점자교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조이풀중창단 공연소식**

조이풀중창단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으로 부천가은병원, 명지춘혜병원 등을 방문하여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정기연주회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선교 50주년 기념음악회에 참여하여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하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 **여름방학특강, 아는 만큼 들리는 클래식**

음악적역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하여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음악을 들어보는 "아는 만큼 들리는 클래식"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대별 클래식 음악의 변천사와 작곡가의 삶과 사랑 이야기, 영화 속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을 함께 들으며 평소 익숙했지만 알지 못했던 음악의 제목과 곡이 탄생된 비화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SBS Sports 정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SBS Sports 정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야구를 쉽고 재미있게 보는 방법과 짜릿하고 생생했던 프로야구 경기 장면과 중계 현장에 대한 내용을 2부에서 저서인 "야구장에 출근한 남자"의 집필과정과 도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해주셨습니다.



▶ **나도북튜버**

7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나도 북튜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5회차에는 평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영상 편집을 마친 후 시각장애인 북튜버 채널 '어울림 책방'을 개설하여 유튜브 및 복지관 페이스북 등에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 **그림책 읽는 어른이**

2019년 독서문화사업 '그림책 읽는 어른이' 프로그램이 8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총 4회차 동안 그림책과 미술 독후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각으로 색을 느끼고, 색과 관련된 감정과 기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음악점자교실 종강**

음악재활센터 음악점자교실을 통해 교육생들은 음악점자를 활용하여 간단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피아노 연주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생들의 음악적역교정사 시험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로암학습지원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제6회 국악캠프 ▶

6년간의 깊은 유산과 전통을 자랑하는 설리번의 국악캠프가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악캠프에서는 춘향가와 흥보가를 쉬운 대사로 바꾸어 연극을 진행하였으며, 그 밖에도 판소리체험·풍물놀이 체험 등을 통해 국악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야외체험 (물놀이)

시각장애인가족들과 함께 가족 물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각장애자녀를 둔 11가정 39명의 가족들이 참여하여 가족과 함께 워터슬라이드, 파도풀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며 마지막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리고 시원하게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9년 설리번 가족운동회

국립서울맹학교 운동장에서 시각장애자녀를 둔 24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운동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굳은 몸을 풀어주는 준비체조와 큰 공 굴리기, 풍선기둥 만들기, 림보, 사방줄다리기 등의 게임활동,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체험부스, 양 손 가득히 들고가는 선물까지, 가족운동회를 통해 가족 간 결속력과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도서관테마교육 '모기 한 살이' ▶

비시각장애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시각장애학생들이 촉각교재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촉각교재, 동영상 시청, 모기피규어, 모기퇴치 팔찌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각장애학생들의 학습방식을 비시각장애학생이 공부해보며 시각장애인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뜻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 2019년 시각(중복)장애청소년 운동 프로그램 '우.수.자(우리 함께 수영가자)'

2019년 시각(중복)장애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가족지원팀에서는 스포츠체험프로그램(래프팅)을 한솔레포츠(강원도 철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시각장애청소년 11명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나, 둘 구령에 맞춰 다 같이 패들링도 하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에 한탄강에 풍덩 빠져 시원함도 느끼며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동평가 소식

직업평가센터에서는 인천해광학교, 동트는마을, 부산맹학교를 방문하여 이동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제1차 바리스타직업체험 프로그램

직업지원팀에서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각장애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제 1차 바리스타직업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영희 강사님께서 바리스타 직무 지식과 기술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6명의 시각장애인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원두를 직접 맛보고 향을 맡아보게 하는 등 능동적인 진로개발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 제 74회 취업자간담회

직업지원팀에서는 제 74회 취업자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각장애인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베이커리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베이커리 체험에서는 버터쿠키를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 워크숍

2019년 하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 (5개공과: 바리스타카페창업훈련 23기, 베이커리창업훈련 14기, 안마지압창업훈련 39기, 장애인권·인식개선 전문강사양성훈련 47기, 장애인 점역교정사 양성훈련 11기) 워크숍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직무를 분석하고 워크와타던 커피박물관 체험과 선배와의 만남 등의 시간을 통해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 입학식

2019년 하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 5개공과 바리스타카페창업훈련 23기, 베이커리창업훈련 14기, 안마지압창업훈련 39기, 장애인권·인식개선 전문강사양성훈련 47기, 장애인 점역교정사 양성훈련 11기의 입학식이 7월 1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총 26명의 훈련생이 입학하였습니다. 5개월의 훈련기간 동안 열심히 참여하셔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지원사업 탄자니아 시각장애학생 대상 '학습지원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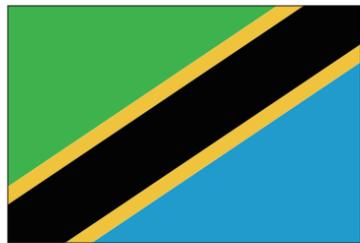
문의전화 국제장애인지원센터 02-880-0870~3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탄자니아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2017년부터 킬리만자로주 모시 지역에서 장애인 옥수수농장지원사업, 시각장애학생 학습지원사업을 수행해왔으며, 본 사업을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아루샤, 탕가 지역에서 장학금 수여 및 탄자니아 점자교과서, 후원의류에 관한 기증식, 점자교과서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증식에서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전문 점역사가 제작한 탄자니아 점자교과서 101권과 세아상역에서 후원받은 의류를 기증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탄자니아 시각장애인 학생 5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탄자니아 United Republic of Tanzania

탄자니아에는 다양한 기후가 있습니다. 고지대는 각각 겨울과 여름에 10°C와 20°C를 기록하며, 나머지 지역은 열대 사바나 기후를 띄고 여름에 20°C 이상을 기록합니다. 한편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통하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대륙 최고봉이자 지구에서 가장 큰 휴화산인 킬리만자로와 세계적인 야생동물 국립공원을 무려 두 개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제장애인지원사업 별책부록

탄자니아 말 어디까지 해봤니?

안녕하세요?

→ Jambo? 잠보?

다 잘될거야!

→ Hakuna matata! 하쿠나마타타!

감사합니다.

→ Asante. 아산테.



특히, 청주맹학교(교장 윤석우) 시각장애인 길태영 교사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음악점역사를 파견하여 탄자니아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점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점자교과서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법, 점자교과서 학습 관련한 실습 등의 교육을 진행하여 사업에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으로는 ▲점자 알파벳의 구성 체계 이해 ▲묵음악자, 축어 사용 규칙 활용 등의 통일영어점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음악기초 이론 교육 ▲음악점자 교육을 통한 합주 등의 음악점자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어점자교육을 받은 한 탄자니아 시각장애학생은 "점자교육을 받은 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만난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탄자니아는 시각장애인 문맹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 열악한 학교시설, 낮은 등록률, 특수교사 부족으로 비장애학생에 비해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나 교재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자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며, 점자용지의 경우 자체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로암은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삶을 돌아보고 지원하기 위해 국제장애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직업재활, 교육, 이동권, 정보접근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14개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로암 칼럼

점자표기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요?

점자는 지면 위에 도드라진 점을 손가락으로 만져서 읽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즉 시각장애인이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게 한 특수 부호 글자이다. 영어로는 Braille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6점 점자 체계를 고안한 프랑스의 시각장애인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

6점 점자체계란, 말 그대로 6개의 점(세로 3점 x 가로 2점)을 사용하여 만든 문자체계를 말한다. 이 6개의 점을 조합하여 64개의 점형을 만들고 각각의 점형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눈이 아닌 손끝으로 읽을 수 있는 문자가 탄생했다.

오래 점자는 만국 공통이겠거나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6개의 점을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문자(점자의 상대어로 비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일반 글자)와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사용하는 점자가 상이하다. 한국어 점자, 영어 점자, 일본어 점자, 프랑스어 점자, 중국어 점자 등 언어마다 점형이 의미하는 내용과 점자 규정이 다 다르다.

문의전화 점역팀 02-880-0630~7

“선생님 음료수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쉬는 시간, 회화교실 수강생이 건네준 달콤한 사과 음료 캔을 따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두 글자, ‘음료’. 정확히 말하자면 두 개의 점자다.



점자는 손끝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내 눈에 들어온 캔 음료 상단에 찍힌 ‘음료’라는 두 개의 점자. 점자를 배우고 점역사로 근무한 지 1년 남짓. 나는 정안인이기 때문에 점자도 묵자처럼 눈으로 읽는다. 그러므로 점자가 캔 음료 상단의 어디에 찍혀

있든 상관없이 읽을 수 있다. 아니, 애초에 점자를 읽을 필요가 없다.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캔 겉면에는 음료의 이름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정보가 묵자로 빼곡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점자가 필요한, 점자를 사용하는 당사자인 시각장애인들은 어떨까. 무심코 왼손 검지손가락을 점자에 갖다 댄 순간, 나는 조금 마음이 복잡해졌다. 175ml 용량의 작은 캔 음료인 텃도 있겠지만 손끝이 동그란 테두리에 걸려 점자를 만지기가 어렵다. 모진 세월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



어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손톱이나 겨우 걸칠 수 있을까.

점자는 손끝으로 읽을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는데 이걸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동료 교정사 선생님에게 물어 보았다.

“선생님, 이 점자 읽을 수 있어요?”

“음... 굳이 읽자면 읽을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하긴 하죠. 점 크기나 높이도 규정에 안 맞고...”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회사 혹은 다른 나라 캔 음료에는 점자가 어떻게 찍혀 있을까. 몇 개 안 되지만 아쉬운 대로 우리집 냉장고에 들어 있는 캔 음료를 모두 꺼내 보았다.

죽어가는 소도 벌떡 일으켜 세울 것만 같은 에너지 드링크와 벨기에의 별이라는 맥주에는 점자 표기가 없었다.

수강생이 건네 준 사과 음료(좌)와 냉장고



점자 표기가 없다.



탄산음료이든 아니든

모두 ‘음료’라고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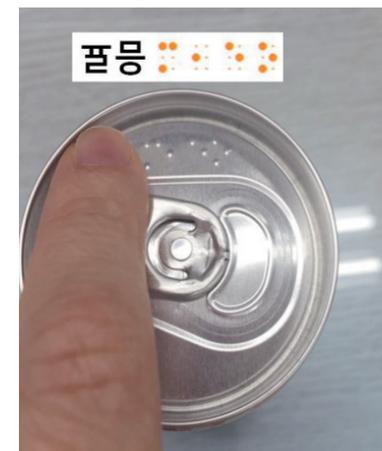
구석에 쓸쓸히 잠들어 있는 언제 샀는지 모를 포도 맛 탄산음료(우). 탄산음료든 아니든 모두 ‘음료’라고 표기되어 있다.

마시면 적당히 기분 좋게 발그레해진다는 일본산 칵테일주에는 묵자로 ‘おさけです(술입니다)’, 점자로 ‘오사케(술)’라고 적혀 있다. 점자가 찍힌 위치나 방향은 한국 제품과 동일했다.



이쯤 되니 내 머릿속에 점점 더 강하게 떠오르는 의문점 하나. 점자를 왜 그 위치에 그

방향으로 찍고 있는 것일까. 캔을 반 바퀴 돌려 보았다. 글자가 뒤집어진다. 그러나 손으로 만지기는 훨씬 수월하다. 글자 방향만 반대로 찍어 준다면 곰 발바닥 같은 우리 아버지의 손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점자는 캔 음료 상단의 그 자리에 그 방향으로 찍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라도 있는 것일까. 모르긴 해도 아마 없을 것이다. 설사 그런 법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은 개정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나로서는 점자를 찍으라고 하니깐 별다른 고민 없이 덮어놓고 찍었나 보다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왕지사 하는 것, 제대로 하면 좋겠다

시각장애인에게서는 지금처럼 단순히 ‘음료’라는 표기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음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없다며, 점자 표기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탄산음료 중 ‘음료’가 아닌 ‘탄산’으로 표기한 제품도 본 적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비율은 약 5.2%에 불과하며

이처럼 특별한 소수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경제 논리를 내세우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정확히 얼마의 비용이 추가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점자를 찍는 방향을 바꾸든, 점자표기를 다양하게 늘리든, 모두 제조원가나 생산관리 비용이 얼마간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테니까. 다만 그저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장애인 인권이 어떨고 하는 거창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지금도 이왕지사 다수의 기업에서 비용과 수고를 들여 점자를 찍고 있는 거라면, 그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점의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점자 방향을 뒤집어 본다든지 하는 작은 시도를 거듭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기계의 압력이나 위치를 조금만 손봐도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사회의 배려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이렇게 작은 관심과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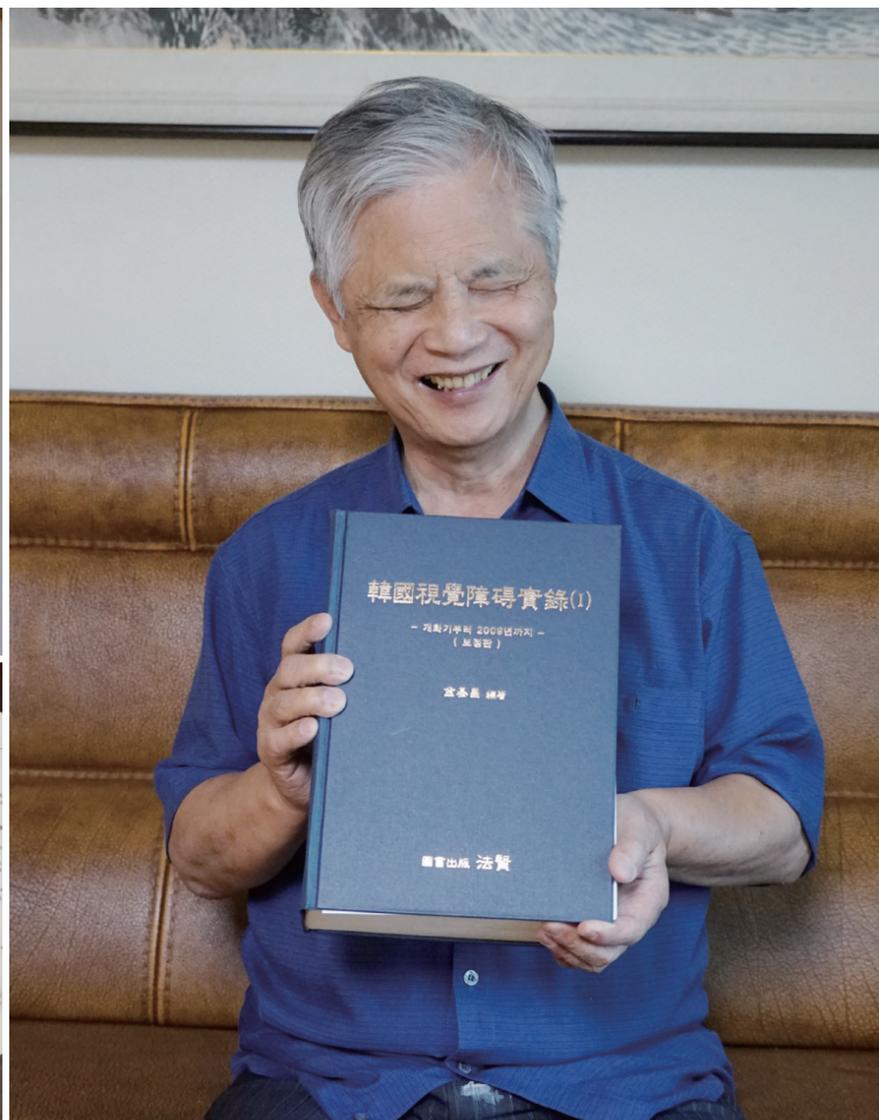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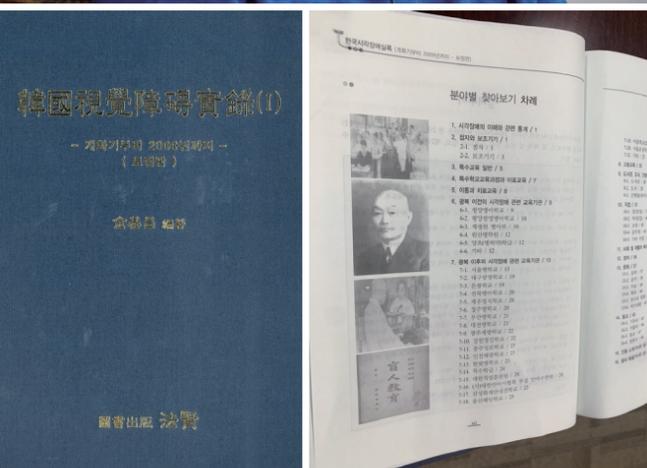


투고자 | 점역팀 이예가 점역사

가을특집 독서코너

한국시각장애실록 (개화기부터 2009년까지) 보정판 발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한 독립운동가의 말처럼 우리 지나온 역사를 잊지 않고 반복된 실수를 막기 위해 기록을 합니다. 결국 하루하루의 기록들이 모여 한 민족의 역사가 완성되는데요. 여기 수년을 걸쳐 특별한 발자취와 기록, 역사를 찾아나선 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시각장애실록(개화기부터 2009년까지) 보정판의 편저자 김기창 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가 찾고자 한, 그가 찾아낸 발자취와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계성을 보완해주는 수단.. 기록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서울맹학교장으로 「한국시각장애실록(개화기부터 2009년까지) 보정판」의 편저자 김기창입니다. 지나간 일은 시간이 흐르면 기억에서 흐릿해지거나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기억의 한계성을 보완해주는 수단이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시각장애인들은 특정한 점자필기구가 없으면 그때그때 곧바로 기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필요한 사항을 나중에 기록한다고 미루었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시간이 흐른 후에 기록한다고 해도 기억이 흐릿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각장애에 대한 기록 부재

제가 2009년 1학기 단국대학교에서 '한국의 이료교육과 이료제도의 변천' 과목을 강의하게 되었을 때 지난날들의 관련 자료를 찾는데 몹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때 늦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개화기 이후에 있었던 시각장애에 관련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가능한 데까지 기록해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류는 좀 있지만 김천년 님이 남기신 '맹인 실록(미간)' 및 양만석 님이 제공해주신 침안업계의 자료와 이찬영 님이 알려주신 역리업계에 관한 자료 등은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각종 신문에서 시각장애에 관련된 기사를 찾았고, 각 시각장애학교에서 발간된 도서를 읽고 해당 졸업생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또 시각장애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도서 및 특수교육학 교수님 등이 발행한 도서들을 참고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명 인사의 자서전과 전기 및 홈페이지와 개인들이 전해주는 자료들도 대단히 소중한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실록(개화기부터 2009년까지) 보정판

한국시각장애실록(개화기부터 2009년까지)은 2015년에 초판으로 발간되었으나 이후 오류와 추가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올해 전 2권을 보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실록의 이해를 충분히 돕기 위해 사회, 정치, 문화, 교육, 시각장애인 기관 등의 총 16개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기록하였으며 가나다순으로 본문의 표제어와 참고사항을 총망라하여 배열하고 해당 연월일과 페이지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보정판에는 2009년 이후 시각장애인에게서 일어난 특별한 이슈나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 역사 기록의 시발점

때론 주변에서 '아무도 책을 찾지 않을 것이다. 수년을 걸쳐 고생스러운 일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책을 완성해야 한다는 일념 아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누군가가 지식을 얻어 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시각장애에 대해 궁금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학계 등에서 한국시각장애실록이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 책은 비매품으로 300권만 인쇄하여 도서관 및 학교,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 등지에 배포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USB로 제작되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원이 있다면 이 책을 보게 된 누군가가 16개의 분야 중 한 가지를 보고 시각장애인 서적을 제작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장애 전문 서적들이 출판되길 바랍니다.

*한국시각장애실록(개화기부터 2009년까지) 보정판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도움과 우리은행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장애 전문 서적들이 출판되길 바랍니다



人 Side 인터뷰

효명장학생 선배 권창규 님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늘 한결같이 시각장애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 효명장학생 선배 권창규 님.. 그에게 시각장애란 개인이 가진 수많은 특성 중 하나일 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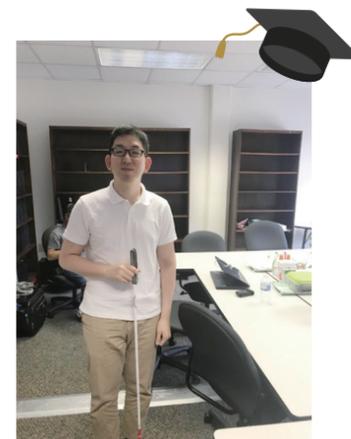


효명장학금 총17회 (2010년~2019년) 수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학사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대학원산업조직심리학과 석사
University of Georgia 성인교육학과 박사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체스터에 위치한 오글랜드대학교 조직리더십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인 권창규 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인데 교육학의 세부 분야로서 인접 학문인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조직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팀, 조직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불의의 사고로 중도 실명 후 일부 시력이 남아있어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이후 거의 빛 정도만 구별 가능한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훌륭한 시각장애인 선생님, 선배, 친구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으며, 그러던 중 우연히 실로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실로암과 저와의 인연은 올해로 만 10년, 대학생 시절부터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2019년 상반기까지 저는 10년간 실로암의 효명장학생이었습니다. 실로암의 이사장님이신 김선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하 맹인선교부에서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장학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실로암에서는 이 사업을 이어받아 2010년부터 효명장학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효명장학금이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성이 반듯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차세대 리더 양성과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 사업입니다.

저와 함께 2010년부터 효명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공무원, 변호사 등의 다양한 직종으로 사회에 진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자랑스러운 효명장학생 선배가 되었고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효명아카데미리더스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였습니다. 효명아카데미리더스클럽 활동은 더욱더 장학사업의 열매를 알리고 품성과 능력을 갖춘 시각장애인 대학생 인재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명장학금은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내가 하는 일이 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시각장애인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야겠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 준 삶의 긍정적인 자극제였습니다.

“ ”

효명장학금은 제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시각장애인 선배로서 우리 시각장애 후배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야겠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게 해 준 제 삶의 긍정적인 자극제였습니다.

장애 No problem

미국에서 공부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한 시각장애인 재단을 통해 약 6주간 해외연수를 다녀와서부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장애와 상관 없이 각자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미국의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제한된 직업군 속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미국에서 공부해 보고 싶었습니다. 전공을 결정하면서 장애인 경력개발과 고용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직업재활과 같은 전통적인 장애 관련 분야보다는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장애인과 기업을 더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석사는 산업조직심리학, 그리고 박사는 인적자원개발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부 자체보다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학 사정이 좋지 않아 새로운 과수를 뽑지 않는 것이 추세인데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과연 눈도 보이지 않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하루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대학 시절 만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루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교수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움츠려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바꾸고 있음을 믿고 있으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효명장학사업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성이 반듯한 시각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리더 양성과 자립을 목적으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의 보행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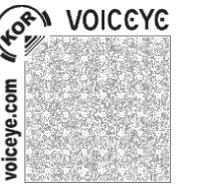
문의전화 자립생활센터 02-0810~6

한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찾기 위해 음향신호기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다. 본 센터에서 나와 봉천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2차선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그러나 음향신호기는 화단 안쪽 어딘가에 있어 어둡한 퇴근길에는 바로 찾을 수 없다. 게다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각선상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를 따라가다 보면 똑바로 건너는 일반 보행자와 부딪히기 일쑤이다. 급하게 뛰어가던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센터를 지나는 시각장애인들의 반응이 대부분 이렇다. 음향신호기 만 따라가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은 여전히 장애인의 보행권이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호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위에 나열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세부내용을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의 시행령 이하 시행규칙에 언급되고 있었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규칙에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내에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12조 2에 근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서 1항인 장애인 거주 시설만이 본 규칙



에 근거한 보호구역지정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역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판단도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서울특별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보호구역에 지정은 주로 자치구별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지정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다양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 나타나 있지만, 장애인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 등)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이런 구역지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거주시설은 지역에서 NIMBI 현상으로 시달리는바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해도 주택가격하락에 대한 우려로 인한 민원으로 지정 과정이 순탄치 않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이용 관련 시설에는 주차차 문제, 과속, 보차혼용 도로로 인한 차량 및 자전거 등의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에 오히려 잘못되어 있는 법 제도의 현실을 비판하고 온전히 장애 당사자의 자유롭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 때문이라도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 및 장애 당사자 모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피할 장소를 당사자들이 미리알고 있어야 하며, 그로인한 대피장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지원해 줄 지원체계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과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은 장애당사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길이므로 아낌없이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어떤 장애당사자가 여가활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다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며 본인의 억울함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에 대해 하자가 있을 때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스스로 본인의 사고와 피해를 입증해 내야하는 상황에서 느꼈을 심리적인 고통과 억울함을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법적인 보장이 모든 해결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걷다가 추락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지 않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화단 사이 설치된 음향신호기



대각선상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불법 볼라드



불법 볼라드

*볼라드(bollard)는 자동차가 인도(人道)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이다. 현재 인도 위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볼라드가 교통약자의 보행 방해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